

#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안내

◆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시장 불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 
\* 필요시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적극 대응 예정

※ 해당 자료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으며,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

## □ 중소기업·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
-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, 5.5조원(中企 1.9조+소상공인 3.6조)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

(일반 → 특례보증)	기술보증기금	신용보증기금	지역신용보증재단
보증규모	0.9조원	1조원	3.6조원
보증료율	1.2% → <b>1.0%</b>	1.2~1.3% → <b>1.0% 이하</b>	1.0~1.1% → 0.8%
보증비율	85% → <b>95%</b>	85% → <b>95%</b>	85~90% → 100%

※ 중소기업 :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 집행

## □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

- **쏘 금융권\***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및 이자 납입\*\*을 6개월간 유예

\* 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

\*\* 9.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 유예

※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·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·소상공인(가계대출, 부동산매매·임대업, 향락·유흥업 관련업종 제외)으로서 원리금 연체·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中企·소상공인에 대해 4.1일부터 시행 예정

## □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마련

### ① 채권시장안정펀드\* 재가동

- \*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모여 설립한 펀드 ('08.12월 금융위기에 따라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음)
- 은행·증권·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,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

### ② 증권시장안정펀드\* 조성

- \*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(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 등)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 조성
-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,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

※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세부 방안(규모 등)은 추후 확정·보고

### ③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\*(P-CBO 발행)

- \*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모아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 등)의 보증을 거쳐 발행
- 추정 재원(1.7조원)을 포함 향후 3년간 6.7조원 발행 추진
- 산업은행이 인수 후 주채권은행·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고, 신보가 신용을 보장하여 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